

##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임 수 진<sup>†</sup>

광주 해바라기아동센터

본 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와의 애착이 공감을 매개하여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광주지역 고등학생 79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학년이나 고등학교의 유형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모형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공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애착은 성폭력 태도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공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성폭력 태도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부모와의 애착은 공감을 매개하여 성폭력 태도에 정적 영향을 준 것이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폭력 태도를 갖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요인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과 공감이었다. 부모와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청소년들의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 성폭력 태도, 부모 애착, 공감, 청소년

<sup>†</sup> 교신저자 : 임수진, 광주 해바라기아동센터, (501-160)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2-1번지 웰클리닉 4층  
Tel : 062-232-1375, E-mail : sjlim429@hanmail.net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0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9,523건이었다(경찰청 자료, 2011). 하지만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2010년 성추행, 강간을 포함한 전체 성폭력 피해건수를 980,694건으로 예상하였다. 여전히 많은 성폭력 사건들은 신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이중 19세 미만의 비율은 34.7%이다. 청소년 성폭력 중에서도 강간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성폭력인 경우는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로 학교 선후배 이거나 친구인 경우가 많았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율은 교육과학기술부(2008)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성폭력 가해 미성년이 1,392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2,136명으로 약 61.5%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고율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성폭력 가해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와 가해는 성에 대해 민감한 시기에 발생하게 되고 이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정애, 박경, 2009; 송원영, 2006; 신기숙, 2004). 하지만 청소년 성폭력 특성이나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한 태도,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방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다.

성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성폭력의 원인은 모델마다 다르다. 그중에서 Marshall의 통합적 이론(Marshall, & Barbaree, 199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모델에 따르면 성적 각성, 애착, 외로움, 공감, 수치심과 부끄러움들의 개인적 '취약성'과 술, 정서적 스트레스와 같은 탈억제 '상황'이 만나 폭력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취약성은 어린시절 부모와의 경험에서 얻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부모애착은 어린시절 아동이 부모와 맺게 되는 신뢰로운 관계를 말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애착은 설명되어 진다(Bowlby, 1973). 부모와 적절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이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착은 과거에는 유아기에 형성되어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이해되었으나, 애착대상이란 필요할 때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안전 기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애착은 평생에 걸쳐 형성, 유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청소년기에도 역시 부모와의 신뢰감과 친밀감이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또래에 비해 덜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주었다(김지현, 2002). 안정적인 애착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적응적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적절한 성적태도를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성폭력과 같은 부적절한 성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숙, 2010).

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박지연, 이은희, 2008). 불안정 애착유형의 청소년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를 보여주었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불안정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회피하거나 강압적인 관계를 시도한다. 그래서 성범죄자는 관계형성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사람들로 규정되기도 한다(Michael, & Martin, 2010). 불안정한 애착관계와 열악한 양육환경은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 기술결여 등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은 부적절한 대상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회복하려는 것이다(Lyn & Burton, 2004; Marshall, 1989).

실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이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신기숙(2002)에서는 가해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지도 못하며 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진, 구창모와 정문성(1990)에서는 10대 성폭행 범죄자의 경우 유년기에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여성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수정과 장현석 (2004)에서도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모와 자식간의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일관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 애착은 남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인 범죄자들도 불안정한 어린시절애착과 불안정한 성인 애착을 보여주었

다(Lyn & Burton, 2004).

성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공감능력의 결여이다. 공감능력은 보통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간접 경험함으로써 공격성을 줄이고 그만두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한다(Moore, 1990). 공감은 크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는데 Davis(1980)는 공감을 다른 사람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추론하는 인지적 능력과 그 사람의 정서적 상태에 대하여 대리경험 할 수 있는 정서적 자질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이러한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한다고 보고 있다(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이영준, 오태성, 2005; Fernandez, & Marshall, 1993). 수감된 성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다른 범죄자에 비해 냉담하고 냉정한 특성을 보였다(Lawing, Frick, & Cruise(2010).

하지만 공감의 어떠한 특성 때문인지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주장을 한다. 먼저, 성폭력 가해자들이 인지적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알지만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해 공격행동을 멈추지 못했다고 보는 연구(Scully, 1988)와 가해자들의 공감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감수준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가 있다.

일반 범죄 청소년과 성범죄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서 타인조망수용이나 상상과 같은 인지적 공감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공감적 배려, 개인적 불편감과 같은 정서적 공감수준에서는 더 낮은 공감수준을 보여주었다(신의진, 오태성, 이영준, 송원영, 이경

숙, 유은희, 2005)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중심적이고,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적 공감 능력의 부족을 나타냈다(Miller & Eisenberg 1988).

공감은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에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박경, 2008). 즉, 남성성이 높으면서 공감능력이 낮은 남성들의 성적 공격성은 매우 높았다. 공감능력은 성적 공격성 등 성폭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부모 애착이다. 아이들은 돌봄의 경험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한다. 주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도움을 줌으로써 아동들은 자신의 욕구에 덜 집착하게 되고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Barnett, 1987) 이러한 타인에 대한 관심이 공감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애착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내적작동모델이 공감적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미경, 방희정, 2007; 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hon, 1992; Ryan, 1997). 안정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갖음으로써 타인의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려 그 사람의 감정에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고 느끼고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청소년일수록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컸다(정자윤, 2010). 안정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은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느낌’의 하위요인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유형이 오히려 상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공감에서는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Pistole, 1999). 특히 상처가 있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상담자들이 내담자에게 더 공감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Miller & Baldwin, 2000). 그렇지만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2006)에서는 상담자들이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지 못하면 상담자의 공감이 오히려 내담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통합하여야 공감능력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불안정한 애착은 공감능력을 감소시키고 정서조절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Barker, Beech & Tyson 2006). 강압적인 대인관계 스타일을 증가시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성폭력 태도에 대한 성별의 차이 연구에서 남학생은 성폭력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였고, 우발적이며 남성의 생리적 충동으로 인해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여학생은 성폭력 피해자는 잘못이 없으며 가해자를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언급에 대해서도 남학생은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여학생은 성폭력으로 인식하였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지식과 태도를 보였다(김희경, 2002; 염영희, 윤양소, 이규은, 정현숙, 2001; 차동석, 2007)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과 공감능력의 결여가 있다. 공감능력의 결여 역시 다시 부모의 불안정한 애착이 선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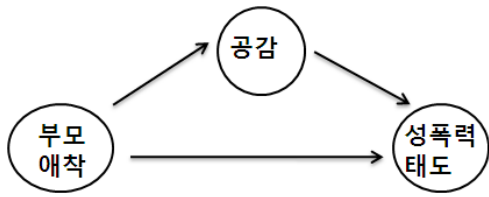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애착, 공감, 성폭력 태도의 연구모형

애착이 성폭력 태도와 공감에 영향을 주고 공감이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그림 1과 같은 모델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애착, 공감, 성폭력 태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2. 공감은 부모애착과 성폭력 태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각 학년을 단위로 층화하여 해당 학년의 한 학급을 표본 추출하여 비례 표집하는 층화표

본추출(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다. 고등학교의 학년 비율, 남, 여 비율, 인문계 전문계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그렇게 표집된 23개 학교의 23개의 반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요원들이 직접학교로 찾아가서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수거된 802개의 설문 중 5부를 제외하고 797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410명이었고 여학생은 387명이었다. 학교유형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609명,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188명이었다. 그리고 학년은 1학년이 305명, 2학년이 231명, 3학년이 261명이었다. 층화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학년이나 남녀 비율, 전문계 고등학생 비율 등이 실제 비율과 비례하여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성폭력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폭력 태도 척도는 신기숙(2004)이 남순열(2000)과 정은자(2000)의 한국인의 성폭력 태도 조사 척도를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영역은 성폭력 지식과 성폭력 인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성폭력 지식에는 성폭력의 유형, 법적 처벌, 발생원인,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97)

항 목	빈 도(%)	항 목	빈 도
성 별	남 410(51.4)	학 년	1학년 305(38.3)
	여 387(48.6)		2학년 231(29.0)
학 교 유 형	인문계 609(76.4)		3학년 261(32.7)
	전문계 188(23.6)		

이성교제시 성행동, 불건전한 성문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폭력 인식에는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성 의식, 음란물과 성충동여부, 성폭력 방지의 책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시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 태도 문항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폭력 지식 12문항, 성폭력 인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은 48점에서 1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기숙(2004)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9이다. 본 연구의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79이다.

#### 부모 애착 척도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이 개발한 부모와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현(2002)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은 25점에서 12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이다. 소외는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를 느끼지 않는 것이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3이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6이다.

#### 공감

청소년의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IRI 검사와 Byrant(1982)의 공감적 각성검사를 박성희(199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공감척도는 조망취하기, 상상하기의 인지적 공감과 공감적 각성, 공감적 관심의 정서적 공감 2가지 영역의 4가지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총 3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은 30-1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적인 사람이다. 박성희(1997)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4이다. 본 연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99이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설문조사 요원이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성폭력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이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였다. 통계는 SPSS 17.0과 AMOS 17.0 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성폭력 태도의 집단 간 차이분석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성폭력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성폭력 태도 평균이 86.988이고 여학생은 93.845로 여학생의 성폭력 태도가 더 올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F_{(2, 794)} = 114.455, p < .001$ )를 보였다. 학년에는 1학년은 성폭력 태도 평균이 90.390이었고, 2학년 평균은 88.108, 3학년 평균은 92.188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학교 유형에서도 인문계 학생이 90.479 전문계 학생이 89.793로 역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모형 분석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측정변인들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애착의 평균은 89.646이었고 표준편차는 17.558이었다. 공감의 평균은 101.516이었

고 표준편차는 14.806이었고 성폭력 태도는 평균이 90.317, 표준편차는 9.667이었다.

각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공감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r=.180, p < .01$ ). 부모애착과 성폭력 태도도 역시 정적상관을 보였다( $r=.159, p < .01$ ). 마지막으로 공감과 성폭력 태도도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r=.332, p < .01$ ). 측정 변인들 역시 대부분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기본가정 검토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단치(outlier), 변량의 정규성(normality),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토 하였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용하였고,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였다. 변량의 선형성(linearity)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본 자료는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 시켰다.

표 2. 성별, 학년, 학교 유형에 따른 성폭력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	M	SD	F
성별	남	410	86.988	.447	114.455***
	여	387	93.845	.460	
학년	1학년	305	90.390	.647	5.206
	2학년	231	88.108	.728	
	3학년	261	92.188	.691	
학교 유형	인문계	609	90.479	.392	.725
	전문계	188	89.793	.705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부모애착, 공감, 성폭력 태도 측정변인의 상관 및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부모애착	인지적공감	정서적공감	공감	성폭력지식	성폭력인식	성폭력태도
신뢰감	-									
의사소통	.831**	-								
소외감	.673**	.593**	-							
부모애착	.950**	.934**	.784**	-						
인지적공감	.180**	.204**	.148**	.202**	-					
정서적공감	.108**	.139**	.103**	.131**	.372**	-				
공감	.153**	.187**	.137**	.180**	.668**	.939**	-			
성폭력지식	.160**	.096*	.209**	.160**	.272**	.259**	.308**	-		
성폭력인식	.109**	.060	.194**	.119**	.252**	.226**	.275**	.551**	-	
성폭력태도	.154**	.089**	.229**	.159**	.289**	.276**	.332**	.894**	.866**	-
평균	37.247	30.943	21.457	89.646	33.340	68.176	101.516	46.494	43.823	90.317
(표준편차)	(7.456)	(7.733)	(4.151)	(17.558)	(5.481)	(11.868)	(14.806)	(5.789)	(5.185)	(9.667)

\*\*\*p<.001, \*\*p<.01, \*p<.050, 소외감 역채점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는 부모에 대한 애착, 공감, 성폭력 태도의 이론변인이 있다. 이들 이론 변인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가정한 측정모형을 구성하고 이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적재량은 .001수준에서 모두 유

의미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49.002$ 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인 NFI=.976, TLI=.964, CFI=.981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066으로 적절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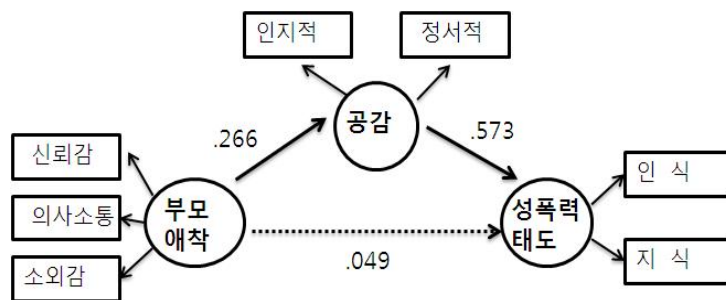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애착, 공감, 성폭력 태도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연구모형 분석**

각 변인들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성폭력 태도로 가는 경로는 회귀계수 .049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애착이 공감으로 가는 경로와 공감이 성폭력 태도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했다. 부모애착이 증가할수록 공감은 증가하였다( $\beta=.266, p<.001$ ). 그리고 공감이 증가할수록 성폭력태도도 역시 증가하였다( $\beta=.537, p<.001$ ).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오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감은 부모애착과 성폭력 태도의 관계를 완전매개(full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과 공감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

다.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애착은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못했지만 간접효과는 유의미 했으며, 부모애착과공감은 성폭력 태도를 30%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모애착은 공감을 7.1% 설명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부모 애착과 공감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공감을 매개하여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모형을 지지하였다. 부모애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chi^2$	df	NFI	TLI	CFI	RMSEA
기준값			>.90	>.90	>.90	<.08
적합도	23.302	11	.993	.993	.996	.025

\*\*\*  $p<.001$

표 5.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오차.

경로	$\beta$	S. E.	C. R.	p
부모애착 → 성폭력 태도	.049	.057	1.077	.282
부모애착 → 공감	.266***	.125	4.968	.000
공감 → 성폭력태도	.537***	.044	6.622	.000

\*\*\*  $p<.001$

표 6.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MC
성폭력 태도	부모 애착	.049	.143	.192
	공감	.537	.000	.537
공감	부모애착	.266	.000	.266

착이 성폭력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지만 공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일반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애착이 성폭력 태도에 정적인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이 성폭력 태도에 주는 영향력은 공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인 것이다.

먼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중에서 성폭력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별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왜곡되지 않은 성폭력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폭력의 범위를 더 좁게 인식하고 있고, 성폭력에 관대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희경, 2002; 염영희 외, 2001; 차동석, 2007)와도 일치한다. 남학생은 성폭력은 우발적 범죄이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청소년들의 성폭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부모와의 관계(신기숙, 2002; 이수정, 장현석, 2004; Lyn, & Burton, 2004; Marshall, 1989; Michael, & Martin, 2010)는 직접적으로 성폭력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공감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이 특성이 다시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부모와의 애착은 성폭력 태도에 정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될수록 왜곡되지 않은 성폭력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은 잘못된 성폭력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이수정, 장현석, 2004; 최윤진 등, 1990; Lyn, & Burton, 2004; Marshall,

1989; Michael, & Martin, 2010).

다음으로 부모와의 애착은 공감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정자윤, 2010; 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therthon, 1992)와 일치하였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일수록 공감을 더 잘하였으며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모델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긍정적 내적 자기모델과 타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적절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몰두하여 타인에게 정서적·인지적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공감이 성폭력 태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는 것 역시, 선행 연구결과(박경, 2008; 송원영 등, 2005; 신의진 등, 2005; Fernandez, & Marshall, 1999; Lawing, etc, 2010; Marshall, & Barbaree, 1990)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공감능력의 결여는 성폭력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이며 Moore(1990)는 공감능력이 인간의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보았다. 이처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의 태도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에는 이미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정애, 박경, 2009; 송원영, 2006, 송원영 등, 2005; Marshall, Anderson, Fernandez, 1999; Michael, & Martin, 2010). 공감능력은 청소년들의 성폭력뿐 아니라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

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박지연, 이은희, 2008). 따라서 청소년들의 공감능력은 문제행동을 줄이고 조절해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렇듯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성폭력을 실제 하는 청소년들이 단지 이 행동하나에만 국한되어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기 보다는 불안정한 애착과 공감능력의 감소에 기인한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폭력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폭력이 나쁘다는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닌 폭력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로운 애착 형성을 통한 타인에 대한 배려 특히,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애착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시절에 한번 형성되어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Main, Kaplan & Cassidy, 1985)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또한 교사나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안정된 애착은 가능하다(전재일 천수혜, 2008). 이러한 타인과의 신뢰감 회복과 정서적인 교감이 청소년들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공감능력의 향상은 상대의 거부를 지각할 수 있고 나의 행동으로 인한 상대방의 상처를 깊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감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청소년들의 성폭력

태도와 실제 성폭력 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성폭력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성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가정하고 기술하였지만 실제 성폭력을 행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공감과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일반화의 문제로 많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표한다는 일반화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갖는 한계점으로 실제 태도와 자신이 지각하는 태도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경찰청자료 (2011)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none](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1.jsp#none).
- 고정애, 박 경 (200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공감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37-51.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무서운 10대' 미성년, 성폭력 2년새 60% 급증. 경향신문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성폭력 실태조사 (2011) 여성가족부: 지난1년간 성폭력 피해율.
- 김정숙 (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2002).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20-33.

- 남미경, 방희정 (2007). 애착 단기 접화가 공감 및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 내적 작동 모델 차이로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440-441
- 박 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지연,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03-317
- 송원영 (2006)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이영준, 오태성 (2005).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피해자 공감.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포스터, 63-69.
- 신기숙 (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기숙 (2004). 성폭력 예방교육이 청소년 성폭력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의진, 오태성, 이영준, 송원영, 이경숙, 유은희 (2005).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놀이치료연구, 9(1), 39-52.
- 염영희, 윤양소, 이규은, 정현숙 (2001). 성폭력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과 경험.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38-52.
- 이수정, 장현석 (2004).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와 방안. 청소년개발원.
-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전재일, 천수혜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4(2), 163-187.
- 정자윤 (2010). 청소년의 애착과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동석 (2007). 청소년들이 성폭력 및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 구창모, 정문영 (1990). 청소년 문제 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ker, E., Beech, A., & Tyson, M. (2006). Attachment disorganization and its relevance to sexual offend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 221-231.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 in Child,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146-1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2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28, 759-775.
- Christamas, N. C., Mario J. S. (2002). Empathic deficits in sexual offenders: an integration of affective, social, and cognitive construct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7, 251-270.
- Cooper, M. 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 474-483.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4), 1-17.
- Fernandez, Y. M., & Marshall W. L. (1993). Victim empathy, social self esteem, and psychopathy in rapist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5(1), 11-26.
- Lawing, K., Frick, P. J., Cruise (2010). Difference in offending patterns between adolescent sex Offending high or low in callous-unemotional trait. *Psychological assessment*. 22(2), 298-305.
- Lyn, T. S., & Burton, D. L. (2004). Adult attachment and sexual offender statu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 150-159.
- Main, M., Kaplan, N.,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rshall, W. L. (1989) Intimacy, loneliness, and sex offen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7, 491-503.
- Marshall, W. L., & Barbaree, H. E. (1990). An integrated theory of the etiology of sexual offending. In W. L. Marshall, D. R. Laws, & H. E. Barbaree (Eds.), *Handbook of sexual assault: Issues, theories, and treatment of the offender* (257-275). New York: Plenum Press.
-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99-113.
- Marshall, W. L., Anderson, D., Fernandez, Y. M. (1999).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New York: Wiley.
- Miller, G. D., & Baldwin. D. C. (2000). Implications of the Wounded-Healer Paradigm for the Use of the Self in Therapy. In M. Baldwin(Ed.), *The Use of the Self in Therapy* (pp.243-261). New York; Haworth.
- Michael, S., Martin, L .L. (2010). What is so special about male adolescent sexual offending? A review and test of explanations through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4), 526-575.
- Miller, P. A., & Eisenberg, N. (199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y Bulletin*, 103, 324-344.
- Moore, B. S. (1990).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14, 75-79.
- Pistole. M. C. (1999). Caregiving in attachments relationships: A perspective for counselor,

-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437-446.
- Ryan, G. (1997). Phenomenology: a developmental contextual view. In G. Ryan and S. Lane (Eds), *Journal Sexual Offending: Cause, Consequence and Correction*(.122-135). San Francisco: Jossey-Bass.
- Scully, D. (1988). Convicted rapists' perceptions of self and victim: Role taking and emotions. *Gender and Society*, 2, 200-213.
- 1 차원고접수 : 2012. 7. 27.  
심사통과접수 : 2012. 8. 31.  
최종원고접수 : 2012. 9. 28.

##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on Adolescent Sexual Harassment Attitude: Mediating of Empathy**

**Sujin, Lim**

Sunflower Center for sexual abused chi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attachment on the adolescent sexual harassment attitude. It was established the study modeling which shows the direct effect of attachme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mediate empathy variables which can mediate parents attachment and adolescent sexual harassment attitude. The questionnaire has carried out for 797 high school students. After exploring the fitness about the study modeling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it presented that the study modeling could fully explain the data, showing a good fitness. Parent attachment has influenced on adolescent sexual harassment attitude in the indirect way. Looking on the side of indirect effect, parents attach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empathy and empathy has a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 sexual harassment attitude. The more they had secure attachment with parents, the more they were right sexual harassment attitude. It is suggested that adolescents need to have opportunities which they can experience attachment in home, school, and community throughout their lives.

*Key words* : Parent Attachment, Sexual Harassment Attitude, Empathy, Adolescent